

샤인머스켓·사과나무 심어 봄...나무시장 기지개 커다

산림조합중앙회 나무판매 전시장 개장...4월 말까지 연중무휴 운영 체리·오미자·조경수·꽃 등 수백 종...시중보다 10% 저렴하게 판매

5일 정오에 찾은 광주시 광산구 산림조합 나무 판매 전시장.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나무시장 내부는 수백 종의 나무와 꽃들이 전시 판매 중이었다.

지난해 광주를 떠나 화순으로 향해 마당이 넓은 집을 지었다는 하유남(아·55)씨는 남편, 딸과 함께 나무시장을 찾았다.

하씨는 "마당이 생겨서 나무를 심어볼까 하고 전시장을 찾았다"며 "사실 남편 손에 이끌려 왔는데 마음에 드는 나무들이 많아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하씨의 구입목록에는 체리나무, 자두나무와 같은 과일나무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조경수 등 20여 그루의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나무시장은 나무 구입명세서에 품종과 단가를 적고 계산을 하면 산림조합 직원이 직접 나무를 포장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장되고 있는 나무를 지켜보고 있던 전현숙(49)씨는 "사과나무와 샤인머스켓 그리고 이것저것해서 총 18만원 어치 구매했다"며 "날이 풀리고 식목일도 가까워지니 나무를 심어볼까 해서 찾았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나무판매 전시장(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663번지)이 올해도 문을 열었다. 나무시장은 1만4080㎡ 규모의 온실에 200여 종 11만 그루의 유실수, 조경수, 화초류 등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지난달 24일 운영에 들어갔다.

나무시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무심기 기간과 식목일에 맞춰 나무심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 시작했다.

최근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반려식물에 대한 관



5일 정오에 광주시 광산구 산림조합 나무판매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이 오미자 묘목을 살펴보고 있다.

심이 높아지면서 나무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올해부터 '산림조합 마트(MART)'

라는 브랜드명을 붙여 나무시장을 운영 중이다. 나무시장은 관심도와 함께 매출 또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나무시장 최고 인기 품종은 감(대봉). 이어

철쭉→사과→대추(사과대추)→호두→자두→복숭아→고로쇠 순으로 판매가 많았다.

올해도 샤인머스켓 4000원, 울마 6000원, 에메랄드 그린 5000원, 산세베리아 1만5000원, 율나루 2500원, 헛개나무 2000원, 쥐뿔나무 2000원 등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나무시장은 생장이 덜 된 어린 나무보다 비교적 더 큰 나무들이 인기가 많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기른 나무가 시민들이 키우기 쉽고 과실을 맺는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나무시장은 산림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품질의 묘목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판매 중으로 시중보다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나무를 키우는데 필요한 각종 입엽, 조경자재 및 친환경 비료도 판매한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나무시장은 광주전남지역분부를 포함한 15개 지역 산림조합이 운영 중이다"라며 "오는 4월 말까지 쉬는 날 없이 운영하는 만큼 다음 달 식목일을 앞두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돈 많이 사랑해주세요”...농협전남본부, 삼삼데이 맞아 판촉 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 3일 삼겹살 데이(3월 3일) 20주년을 맞아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곡성축협(조합장 박양규)과 함께 아의 행사장에서 한돈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한돈 시식회 및 판촉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복 전남농협 경제본부장과 이화섭 대한한돈협회 곡성지부장, 이철신 농협 곡성군지부장, 박양규 곡성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고객을 대상으로 삼겹살, 목살 등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한돈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삼겹살데이 20주년을 맞아 한돈을 널리 알리고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네 한돈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사육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식품안전관



리인증(HACCP)을 도입하고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2003년부터 '3'이 두 번 겹치는 3

월 3일을 '삼겹살 먹는 날'로 정해 매년 돼지고기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렴농협 구현’ 윤리경영실천 결의대회

농협 광주본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맨앞줄 오른쪽 세번째)는 최근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2023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5일 밝혔다.

행사는 고성신 본부장과 범농협 임직원 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

집했다.

특히 오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관련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갑질 및 성희롱 등 위법행위 근절,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감분화 형성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전 임직원은 법령과 제규정,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농업·농촌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뢰 받는 농협 광주본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어획량 부진에 건멸치·살오징어 가격 1년 새 30% 상승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인 건멸치와 물오징어 가격이 어획량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3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일 기준 건멸치 중품 1kg의 도매 가격은 2만1000원으로, 1년 전인 1만5860원보다 약 32% 높았다. 평년(1만8727원)과 비교하면 약 12% 올랐다.

지난해 1월 1만5353원을 기록했던 건멸치 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2만1176원으로 된 뒤 1~2월 2만원대를 유지했다.

건멸치 가격 상승에는 지난해 굵은 날씨가 지속되는 등 해황이 좋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작년 건멸치 자원 자체는 좋았다. 작년 8~12월 까지 잦은 태풍과 풍랑주의보 등으로 해황이 좋지 않아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며 "높은 파도 등으로 어군들이 많이 퍼져서 어장 탐색을 해야 하는데 기름값이 오르며 어민들의 어군 탐색 활동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어획량 부진으로 살오징어 가격도 올랐다.

지난 2일 기준 살오징어 생선 중품 1kg 도매 가격은 1만4500원으로 1년 전인 1만1240원보다 약 29% 올랐다. 평년(1만881원)과 비교하면 약 33% 오른 수치다.

살오징어 가격 오름세는 10~12월 주어기에 동해 북쪽 수역에 고수온이 계속되며 오징어 생산량 자체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21년 약 6만1000t이었던 살오징어 연근해 생산량은 지난해 약 3만7000t으로 40% 정도 급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